

## 적극행정 중점과제 관리카드

과제제목 <sup>1</sup> (정책명)	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 시스템 '안심변호사·노무사 제도' 도입				과제 유형 <sup>2</sup>	(유형1)-③
					추진 현황	완료
과제요약 <sup>3</sup>	<b>(분야)</b> 코로나19 관련 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 <input type="checkbox"/> 규제개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b>(현황)</b> 기명 신고 상임감사 핫라인 및 익명 신고 공사 스마트게시판 원클릭 신고센터 <b>(개선)</b>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으로 제보자 노출 부담 차단 <b>(성과)</b>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지원 및 내부고발자 보호					
팀명 <sup>4</sup>	청렴감사팀					
담당자 <sup>5</sup>	구분	부서명	직급	성명	해당업무 수행기간	
	주 담당자	청렴감사팀	사무4급	홍석희	'19. 7월 ~ 현재	(3년 4월)
	협업 담당자	청렴감사팀	관리3급	김완영	'21. 8월 ~ 현재	(1년 3월)
각종대회 수상실적 <sup>6</sup>						
가점대상 여부 <sup>7</sup>	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사례 <input type="checkbox"/>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(국민)추천 사례 <input type="checkbox"/> <small>※ 종류 및 횟수</small> 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<small>※ 과제명</small></span> <small>(적극행정위원회 0회, 사전 컨설팅 0회)</small>					
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<sup>8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보자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따라 직통신고 채널인 상임감사 핫라인 신고채널을 신설(21년)하였으나, 익명성 제보가 잇따름에 따른 제보의 실효성 미담보</li> <li>- 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 중 신고자 보호 관련 항목이 취약함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통한 신고부담 해소 방안 필요</li> </ul>					
실무상 어려움 <sup>9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사업은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루트의 전문가를 찾아야 했음</li> <li>- 제보자의 신분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필요</li> </ul>					
해결노력 <sup>10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나 고문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선임</li> <li>-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모의신고 실시 : 22. 9월</li> </ul>					
주요성과 <sup>11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가 비실명 대리 신고를 자체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</li> <li>- 공익신고 외에도 근로 환경과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체계 마련</li> <li>-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활용,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</li> </ul>					
미담사례 <sup>12</sup>						

참고자료

### - 안심Agent 비실명 대리신고 운영계획

문서 번호	안심Agent비실명-1014
제 출 연 도	2022.05.02

차 장	행정감사팀장	감사차장	감사
주 재 부 서	유재희	이연진	홍성현 유재영

— 신고자 보호 철저로 내부침범도 양상을 위한 —

**안심 Agent 비실명 대리신고 운영 계획안**



### - 2022.5.10. 남도일보

#### 광주도시철도, 비실명 대리신고 '안심 AGENT' 도입

▲ 김경태 기자 | © 일력 2022.05.10 17:25 | 1쪽 중 0

철저한 익명성 보장으로 투명 청렴경영 강화

